재미있는 백암산 이야기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헌장

우리 공단 임직원은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공원관리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양한 생태계, 유구한 문화유산, 수려한 자연경관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으로 보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련 자료와 다양한 탐방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 탐방서비스헌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발간사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장 정석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후대에까지 보전하고 물려주어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자연공원으로, 자연생태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의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공원구역 내에 위치한 백암산은 백제 무왕 33년에 창건한 전통사찰인 백양사가 자리 잡고 있고, 입암산에는 삼국시대 축조되었던 입암산성이 있어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옛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며 특히 공원에 속해있는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곳곳의 지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은 국립공원의 다른 자원에 비해 교육과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는 백암산의 마을 및 지명유래, 전설과 인물 등 숨겨졌던 이야기를 발굴하여 우리지역의 뛰어난 문화자원을 알려주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이야기처럼 백암산이야기를 통해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 깃든 옛 선인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 5. 20.

축간사



장성군수 이 청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을 대표하는 백암산을 배경으로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를 엄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책자를 발간하신 것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백암산을 통하여 우리의 얼과 혼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이런 책자들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참다운 행복이며 정서순화를 위한 값진 매개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비의 고장이자 문향 고을인 우리 장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 나아가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9. 5. 20.

축간사



장성문화원장 김 영 풍

백암산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암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 그리고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고장의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암산에 대하여 제대로 소개된 자료들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이때에 이번에 발간된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는 우리 백암산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대한팔경의 하나로 알려진 백암산의 다양한 야생식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유서 깊은 전통문화유적들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설명되어 있어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장성을 대표하는 백암산의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가 널리 읽혀지고 문화계, 교육계, 관광업계 등 각계각층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백암산을 탐방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오면서도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를 발간한 백암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5. 20.

목차

발간사

백암산 마을들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 가인마을
- 남창마을

백암산의 지명유래

- 백암산 - 갓바위 - 약수리 - 새재 - 은선골
- 성내리 - 불바래기 - 정자동 - 자하동

백암산의 전통제례

- 국기제
- 당산제

할머니가 들려주는 백암산 전설

- 백양사의 유래
- 약사암 영천굴 – 쌀나오는 바위
- 싸움도 못한 입암산성
-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 전일귀
- 갈애바위 전설

백암산의 역사인물

- 백양사를 중창한 각진국사
- 입암산성과 의병장 윤진
- 남창골의 두 선비

백암산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멸종위기 야생식물 진노랑상사화(깃대종)

백암산의 마을들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가인마을

가인마을은 백양골에 있었던 여러 마을 중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백양골을 통칭하는 행정상 동명이 되었답니다. 백양골에는 6.25 전쟁 전까지 괴비동, 북당골, 선마실, 서당골, 탑등, 가린암, 옥가모퉁이 등의 마을이 있었는데 언제쯤 마을을 이루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그 중 한두 개 마을은 백양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인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선마실과 가린암 마을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마을이 이루어 진 것은 200년이 채 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양골의 여러 마을 중 괴비동, 북당골, 서당골은 6.25 전쟁으로 사라졌으며 옥가모퉁이 등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철거되고 가린암만 남게 되었는데 이 가린암이 바로 지금의 가인마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세가 많은 마을 분들은 가인마을을 가린암이라고 부른답니다.

가린암은 마을 뒷산인 가인봉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인(加仁)이라는 명칭도 가린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인마을의 특산물은 고로쇠 약수, 토종꿀, 곶감 등이 있습니다.



가인마을 전경

남창마을

남창마을은 본래 장성군 북상면에 속했는데, 1975년 장성댐이 건설되면서 북하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북하면 신성리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로 원래 입암산(笠岩山 687m) 남쪽 계곡인 남창골에 형성된 여러 마을 중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남창골, 정자동, 평지리를 통틀어 남창마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창마을이라는 명칭은 옛날 이곳(현재의 전남대 수련원 자리)에 남창(남쪽의 곡식창고)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입암산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북창골이 있는데 이곳의 명칭도 남창마을처럼 북쪽의 창고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남창마을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삼국시대 이전부터 입암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몽골군이 침입하였을 때 입암산성(笠岩山成)과 관련되어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입암산성을 수리 보수하면서 산성 내에 사찰을 두었던 기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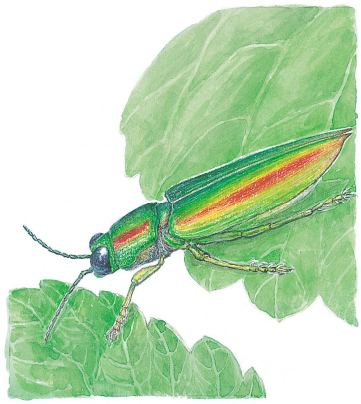
남아있는데 남창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된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하곡 정운룡(霞谷 鄭雲龍 : 1542~1593)선생과 자하 변경윤(紫霞 邊慶胤 : 1574~1623)선생1)이 남창골에 은거2)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창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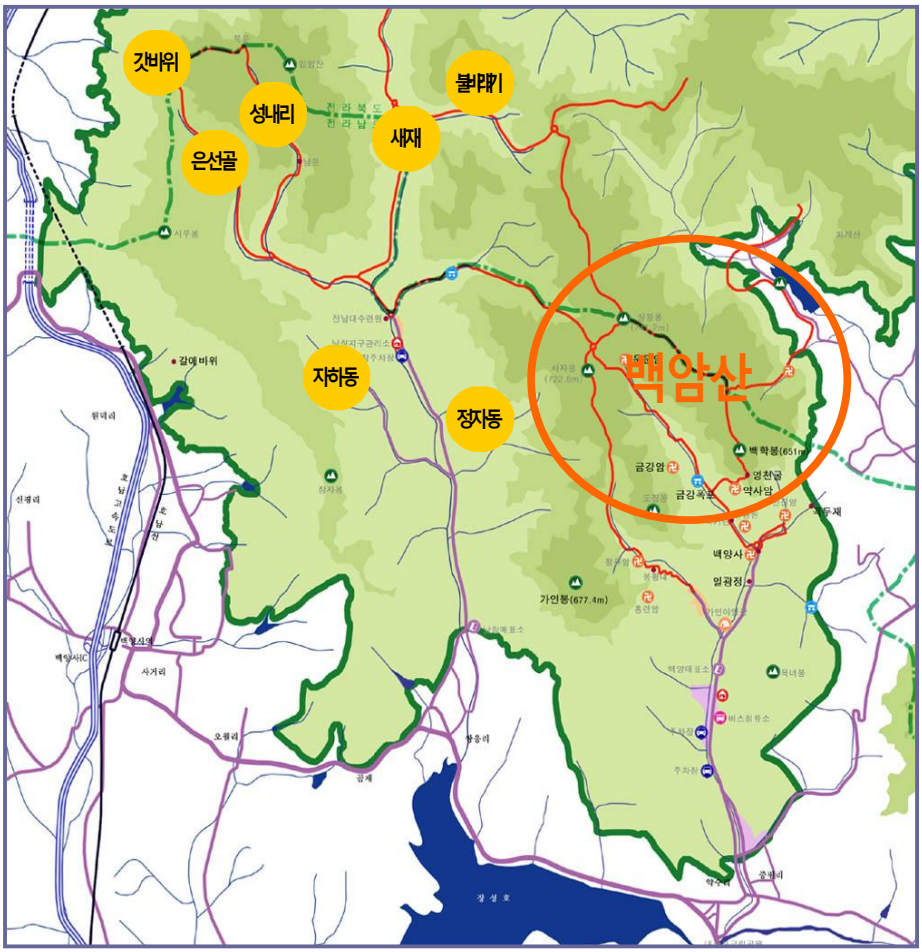
1) 하곡 정운룡, 자하 변경윤 선생에 대해서는 '백암산의 역사인물'을 참고하세요.

2) **은거(隱居)** :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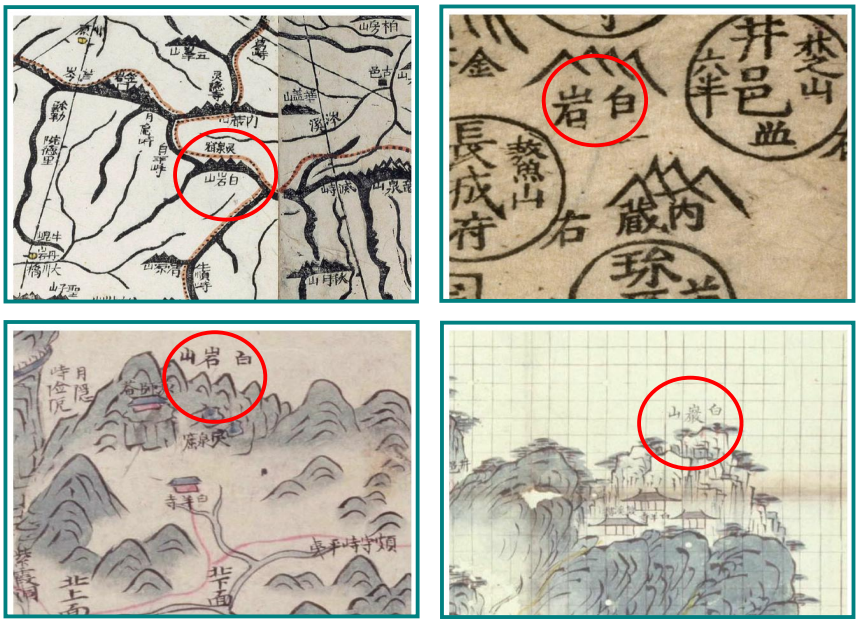
백암산의 천연기념물 비단벌레(깃대종)

백암산의 지명유래


갓바위
성내리
은선골
불대기
새재
자하동
정자동
백암산
금강암
금강폭포
백학봉(651m)
옐천굴
약사암
백양사
입암정
가인봉(677.4m)
묵녀봉
장성호

백암산(白巖山)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백암산은 노령산맥 끝자락에 호남평야를 마주하고 솟아오른 높이 741m의 산입니다. 백암산이란 명칭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 그 유래는 정도전의 「백암산정토사교루기(白巖山淨土寺橋樓記)」[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암석이 모두 백색이어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백암산 백학봉의 학바위에서 그 명칭이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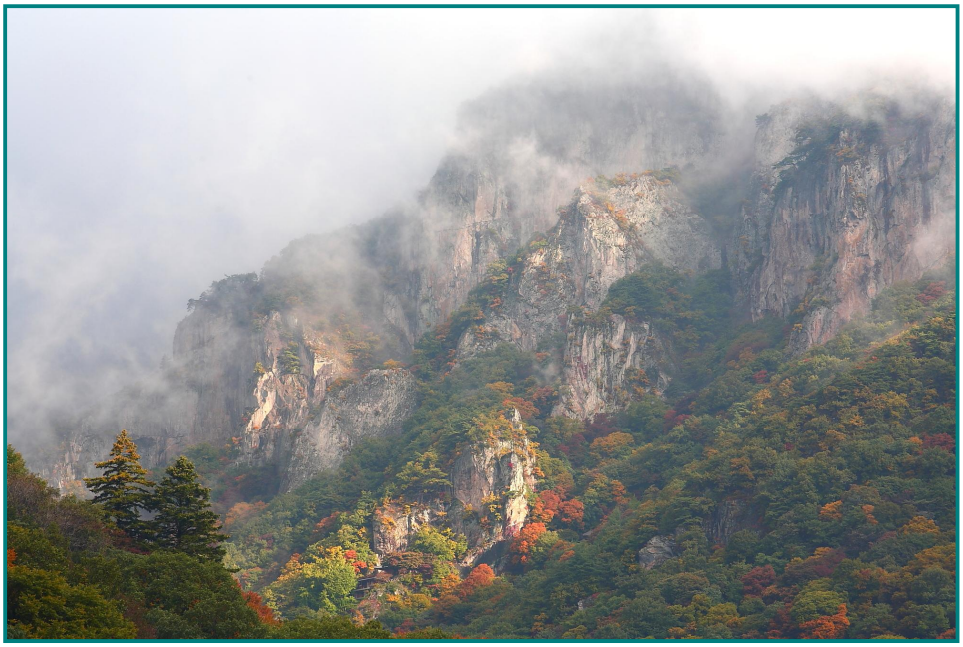


고지도 속의 백암산(상좌우 : 대동여지도, 조선지도, 하좌우 : 해동지도, 비변사방안지도)

1) 백암산정토사교류기 : 고려 우왕 3년(1377) 정도전이 정토사(지금의 백양사)에 들러 무설스님과 청수스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토사의 내력에 대해 쓴 글입니다.

된 것입니다.

백암산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2] 은 물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고서와 고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오랫동안 사람들과 역사를 함께 한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란, 가뭄, 질병 등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임금이 관리를 파견하여 종교와 신분을 떠나 함께 제사를 올렸던 명산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백학봉 가을풍경

2) **신증동국여지승람** : 조선시대 인문지리서로 성종시대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연산군 때 수정한 후 내용을 추가하여 중종25년(1530)에 55권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역대지리서 중 가장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갓바위(입암笠巖)

백암사무소 남창지구의 높이 솟아 있는 입암산(654m) 탐방로 중 가장 높은 곳은 갓바위(652m)라는 큰 암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갓바위는 그 모습이 마치 갓(초립:草笠)을 쓴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갓바위(입암)란 명칭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책에도 입암이라는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사람들도 갓바위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갓바위는 그 모습이 책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책바위로 부르기도 하며 갓바위 아래의 비녀바위와 함께 남녀 한 쌍의 바위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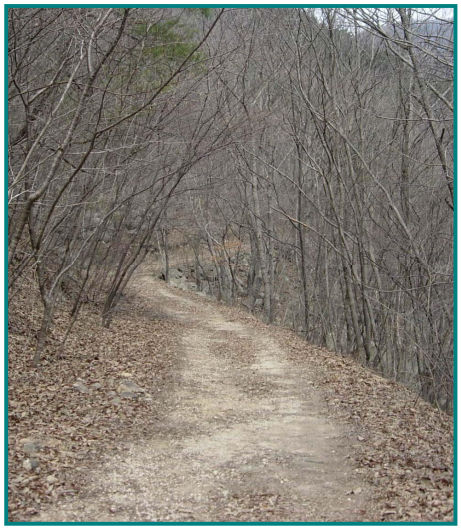
갓바위(좌)와 비녀바위(우)

약수리(藥水里)

약수리는 약수 · 학림 · 화룡 · 가인 마을로 구성된 행정구역입니다. 약수라는 명칭은 학림 뒷산 골짜기에서 약수가 나와 약수정(藥水井)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입니다. 또 약수마을에 5일장이 서서 "약수쟁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새재

'새재'라는 이름은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사이(間) 재'가 변했다는 설, 새(鳥)도 쉬어 넘기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입암산에 있는 장성새재는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서 전북 정읍시 입암면



자연이 살아나는 새재길

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정상부근에 마을과 주막이 번성하기도 했답니다. 또 한때 군사작전도로로 새재길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생태계가 복원되어 산책하기 좋은 탐방로가 되었습니다.

은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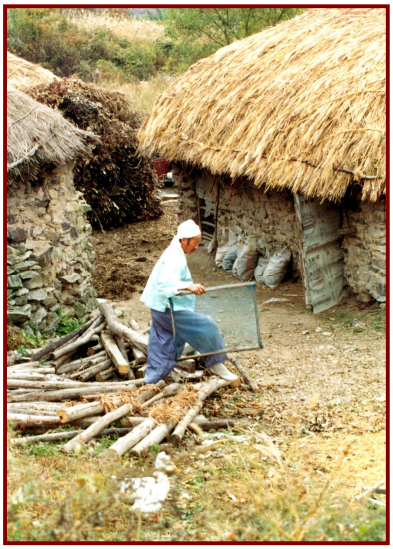
은선골은 입암산 탐방로의 골짜기로 예전에 스님들이 공부를 하였던 은선암(隱仙菴)이라는 절터가 남아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은선골은 과거에는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습지가 형성되어 숫잔대와 큰방울새란을 포함한 100여종의 식물과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의 동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가 되었답니다.

성내리

입암산성 내에 있었던 마을로 1970년대까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공자(孔子)의 유교를 다시

밝힌다는 경정유도(更正儒道)를 믿으며 성인은 갓을 쓰고 처녀, 총각은 댕기를 딴채 살았는데, 6.25전쟁 이후 점차 마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1987년 마지막 한 집이 떠난 후 경작했던 곳이 습지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이 마을이 성내리로 불리게 된 것은 성안의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랍니다.



이전하기 전 성내리 생활모습

불바래기

입암산에서 내장산으로 넘어가는 탐방로 중 장성새재에서 순창새재 사이의 지역을 불바래기라고 부른답니다. 불바래기라고 불리게 된 것은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 하나는 이곳이 매년 한 번씩 불이 나는 곳이라고 해서 불바래기로 불린다는 설과 불바래기 위쪽에 절터가 남아 있는데 부처를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으로 불바래기로 불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자동

정자동은 남창골 입구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3.5km 거리에 있는 자연마을 입니다. 정자동은 하곡 정운룡(霞谷 鄭雲龍 : 1542~1593)선생과 그의 후손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생각됩니다. 정자동이란 동명은 정씨(鄭氏)의 정자(亭子)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것이며, 한자로 정자동(鄭子洞) 혹은 정자동(亭子洞)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하동

남창골 입구에서 2.5km 지점에 향로봉이 있고 여기에서 서북쪽 산길로 2km쯤에 있는 자연마을입니다. 자하 변경윤(紫霞 邊慶胤 : 1574~1623)선생이 은거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15가구가 살았으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어 현재 4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자하동은 자장동(自藏洞), 자하동(紫霞洞), 자장동(紫藏洞), 잣골,

자장동(子長洞)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답니다. 단지 자하동(紫霞洞)이라는 동명은 변경윤선생의 호를 따서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1800년대에 제작된 광여도에도 자하동이라는 동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생각됩니다.



정자동 전경



백암산이 고향인 야생화 백양꽃

백암산의 전통제례



국기제

국기제는 국가에 큰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조정에서 신하를 보내어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던 제례 행사입니다.

백암산에서는 고려 충정왕 때에도 국기제를 올렸다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정토사사적(淨土寺史蹟)」[1]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2]의 기록에 조선 선조 36년(1603)과 현종 2년(1661)에 호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짓고 홍문관교리[3]를 파견하여 제례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기제는 종파를 초월하여 국난을 극복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교식 제의에 의해 조정에서 파견된 헌관[4]과 인근 7~8개 고을 원님들이 집사가 되어 제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제례 절차 중에는 강신례(降神禮 : 신을 부르는 제례절차)가 없고 헌관 1인이 3번 잔을 올리고 4배 하였으며 축(祝)은 땅속에 묻었

---

1) **정토사사적**: 고려 충혜왕 복위 2년(1341)에 백암사(현 백양사)의 스님인 법시(法豕)에 의해 쓰여 진 글로 각진국사에 이해 백양사가 중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증보문헌비고**: 상고부터 조선시대말까지 물문제도를 총망라하여 분류한 책으로 영·정조 때 만들어진 동국문헌비고를 수정 보완하여 광무 7년(1903)에 완성된 백과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3) **홍문관교리**: 홍문관은 왕실의 문서를 관리하고 왕의 보좌하는 기관으로 교리는 정5품의 벼슬을 말합니다.

4) **헌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하는 제관을 말합니다.

는데, 제물은 4변(籩) 4두(豆)[5]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된 이 국기제는 1982년 장성군민의 날 민속 경연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매년 단풍축제 기간에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기제 행사 전경

5) 변·두: 변과 두는 모두 제기를 말하는 것으로 4변, 4두는 8가지 음식을 장만한 것을 말합니다.

당산제

가인마을에서는 정월달에 마을과 백양사가 공동으로 제례를 모시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당산제가 마을주민 중심으로 모시는 것과 달리 가인마을 당산제는 사찰과 함께하는 제례입니다. 백양사에서 제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에서는 제에 올릴 술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과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답니다. 이렇게 제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절에서 스님 두 분이 나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제를 모시게 됩니다.

일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 밤에 모시고 제를 모시는 장소는 두 곳인데 각각 '안당산'과 '바깥당산'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바깥당산은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일광정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이며, 안당산은 '할머니'라 부르고 역시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극락교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합니다. 제례 진행은 백양사에서 나온 스님들에 의해 불교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에서 제관을 뽑을 필요가 없으며 순서는 진설→헌작→삼배→독경→축원→소지[1] 순으로 진행 됩니다.

---

1) **진설, 헌작, 삼배, 독경, 충원, 소지**: 진설은 음식을 상에 차려놓는 것을 가리키며, 헌작은 술을 올리는 것, 삼배는 절을 세 번 하는 것, 독경과 축원은 축문을 읽고 원

가인마을 당산제는 몇 가지 금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에 보러 가는데 그 해 초상집을 다녀왔거나, 아이를 낳았거나, 생일을 맞았거나, 상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례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도 다른 사람이 대신 본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금기사항이 있는데, 물건을 파는 가게가 초상을 당했거나 생일을 맞았으면 그곳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며, 물건을 살 때는 값을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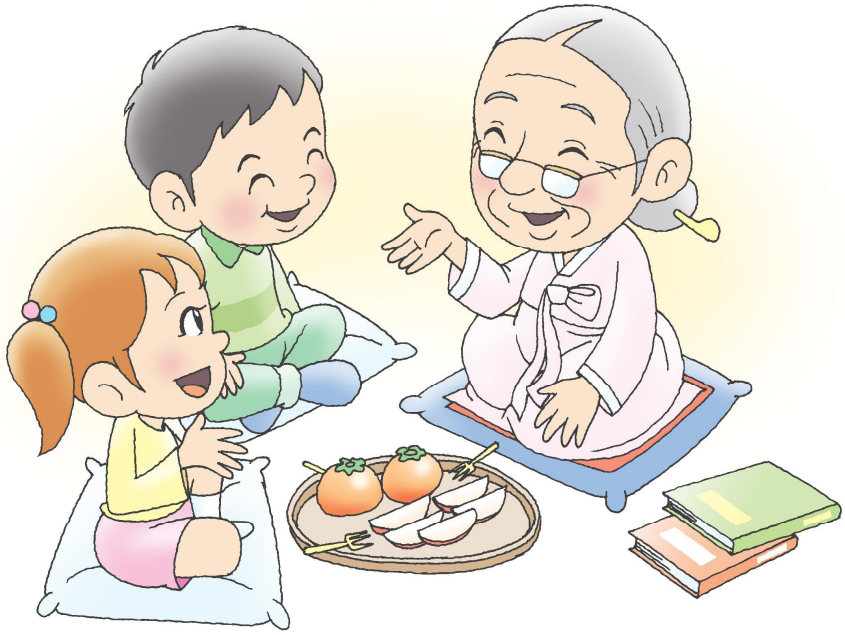
당산나무(좌 안당산, 우 바깥당산)

하는 바를 신에게 기원하는 것을 말하고, 소지는 축문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양골의 야생화 변산바람꽃

할머니가 들려주는
백암산 전설



백양사의 유래

백암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백양사는 삼국시대에 처음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백양사의 명칭은 백암산의 산명을 따라 백암사라고 하였으나 이후 정토사라고 불리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백양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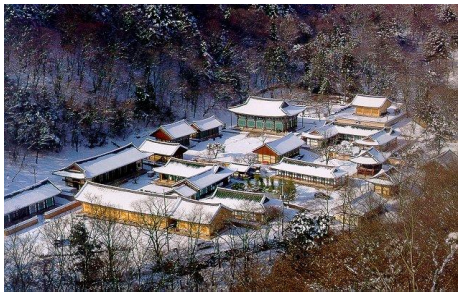
백양사가 백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때는 조선시대로 오랫동안 수행하여 명망이 높으신 스님 한분이 백암사 약사암에 계셨답니다. 이 스님은 언제나 한낮이면 단정히 앉아 법화경[1]이라는 불경을 외우셨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청아한지 백암산 계곡 곳곳에 맑은 물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불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자 구름처럼 백암사로 모였답니다.

"스님의 불경소리는 얼마나 청하한지 언제나 마음 속 깊이 울려 퍼지는 것 같다니까!"

---

1) **법화경** :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여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혜에 들게끔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경.



"맞아! 맞아! 스님의 불경소리는 조선 제일일거야!"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스님의 불경소리가 울려 퍼지자 백암산 골짜기에서 백양 한 마리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불경이 잘 들리는 계곡 아래 너른 바위에 앉아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게, 저것 보게! 양이 마치 스님의 불경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예끼, 이 사람 그럴 리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처음에 사람들은 백양이 내려오는 것이 그저 우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불경을 외울 때 마다 언제나 백양이 내려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불경이 끝나면 조용히 일어나 산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들었나? 약사암 스님이 불경을 외우면 백양이 내려와 듣는다고 하는군!"

"자네 그걸 이제 알았나? 이 근방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람들은 백양이 스님의 불경소리를 듣

고자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스님은 수행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스님은 다소곳이 앉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스님을 부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스님, 스님"

스님은 바람결에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개가 피어난 계곡에서 하얀색 의관을 입은 동자 한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자는 스님을 보더니 큰절을 올렸습니다.



"보살께서는 누구이신데 소승에게 절을 하시는 겁니까?"

스님은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제 모습이 변해 잘 모르시겠지만 전 언제나 스님의 불경을 들었던 백양이랍니다. 원래 전생에 죄를 짓고 백양으로 태어났으나 스님의 불경을 듣고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 축생[2]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동자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스님께 절을 올린 후 안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은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상좌[3]를 보내 언제나 백양이 앉아서 불경을 듣던 곳에 가보게 하였습니다.

"스님! 스님!"

돌아온 상좌는 다급히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 스님이 말씀하신 곳을 가보니 항상 불법을 듣던 백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

2) **축생**: 불교의 윤회에서 짐승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3) **상좌**: 절에서 스님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행자를 말하는 말입니다.

스님은 그제야 꿈에서 본 것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백양이 불경을 듣고 사람으로 환생했다고 해서 절 이름을 백암사가 아닌 백양사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양을 부른다는 뜻으로 스님을 환양(喚羊)선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학봉에서 바라본 백양사

약사암 영천굴 – 쌀 나오는 바위

백암산에는 백양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찰과 암자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 중 백학봉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약사암 영천굴에는 쌀 나오는 바위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옵니다.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약사암 옆에 있는 영천굴에 수도하는 스님과 상좌 한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처음 영천굴에 왔을 때부터 상좌는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스승인 스님은 시주도 받지 않고 수도와 수행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끼니 때가 되자 상좌는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님, 저녁 공양시간이 다되었는데 제가 산 밑에서 시주라도 받으러 갔다 올까요?"

스님은 상좌에 얘기를 듣더니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스님! 어떻게 할까요?"

상좌는 어쩔 줄 몰라 다급히 스승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상좌를 바라보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리 호들갑이냐? 내가 밥이라도 굶길 것이라 생각되느냐? 저기 영천굴에 가보아라. 아마도 우리 둘이 먹을 쌀은 나왔을 것이다."

"스님, 돌에서 쌀이 나온다니요?"

"예끼 이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좌는 스승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천굴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천굴 속 바위틈에서 하얀 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스님의 말처럼 꼭 두 명이 먹을 양만 말입니다.

상좌는 그 후로 끼니때만 되면 영천굴에 쌀을 받으러 들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 한 과객이 약사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상좌는 끼니때가 되자 항상 하던 대로 영천굴에 쌀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영천굴 바위에서는 역시 언제나 나오던 것처럼 두 사람 분의 쌀이 나와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로는 두 명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쌀 나오는 바위 앞에서 상좌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바위에서 쌀이 나오니까 분명 바위 뒤에는 큰 쌀독이 있을 거



야! 꼬챙이로 조금 쑤셔주면 더 많은 쌀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상좌는 바위틈에 꼬챙이를 넣어 이리 저리 헤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좌의 생각과는 달리 쌀은 더 나오지 않았어요.

"어라! 왜 쌀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깊게 넣어 보아야겠다."

상좌는 꼬챙이를 더 깊이 넣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나오라는 쌀은 나오지 않고 빨간 피가 바위틈에서 뿜어져 나왔답니다.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상좌는 너무 당황하여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부리나케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스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이냐?"

"스님 갑자기 쌀 바위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스님!"

"이놈!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 되었단 말이냐?"

"그게 저……, 쌀이 두 명분만 나오고 안 나오길래 제가 꼬챙이로 좀 헤쳐 보았습니다."

상좌는 머리를 조아리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오는 데로 나누어 먹으면 되지 욕심을 부려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내일부터는 네가 산을 내려가 공양을 직접 해 와야 한다. 알겠느냐?"

"스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스님!"

이후로 쌀 나오는 바위에서는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물론 상좌는 그 후로는 산 아래 마을로 매일같이 공양을 얻으러 가야 했지요. 피가 뿜어져 나오던 쌀 바위는 그 후로 맑은 약수가 흘러 나왔는데 이 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상좌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쌀 나오는 신기한 바위를 볼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도 약사암 영천굴의 약수를 먹어보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싸움도 못한 입암산성

호남지방 천애의 요새 중 하나인 입암산성은 조상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서려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 전해지는 전설도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것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조선 선조 26년(1592) 일본은 대규모의 병력으로 우리나라를 침입하였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일본군의 공격에 우리나라는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백성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입암산성에도 일본군이 쳐들어 왔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백양사에는 아주 도력이 높은 스님이 계셨답니다. 이 스님은 도력으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일본군이 입암산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입암산성을 지키고 있던 별장[1]을 찾아 왔답니다.

---

1) **별장**: 조선시대에, 지방의 산성(山城), 나루, 포구, 보루(堡壘) 따위의 수비를 맡아보던 벼슬을 말합니다.



"스님, 무슨 일로 소장을 찾아 오셨습니까?"

"소승이 듣자하니 왜구가 입암산으로 곧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정읍을 통해 이곳으로 쳐들어 올 것이라 하여 걱정하고 있던 참입니다."

"소승이 미력하나마 작은 재주가 있어 왜구를 막아 보도록 하겠으니 장군께서는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스님께서 어떻게 적의 대군을 막아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입암산 별장은 걱정스런 얼굴로 스님에게 물어보았으나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별장과 함께 입암산 문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땅을 몇 번 내려치더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주문을 다 외우자 신기하게도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옹달샘 같더니 금세 작은 저수지가 되고 이내 큰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구가 쳐들어 와도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저와 함께 문루에 앉아 곡차나 나누시지요."

입암산 별장은 자신이 직접 보았어도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한편 입암산성을 공격하여 장성으로 쳐들어오려던 왜장은 벌써 입암산성을 함락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조선군의 수는 우리군의 반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가 지기 전에 입암산성을 점령하고 잔치를 벌이겠다."

왜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입암산 아래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순찰을 나갔던 병사 한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군! 큰일 났습니다."

"승리가 코 앞 인데 무슨 일로 호들갑이냐?"

"장군! 입암산성 아래에 큰 강이 흘러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큰 강이라니? 지도를 가져와 보거라! 이곳 어디에 강이 있더냐?"

왜장은 지도를 이곳저곳 살펴보았으나 방금 생겨난 강이 지도에 표시될 리가 없었답니다. 왜장은 자신이 직접 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장을 이끌고 강가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도에는 보이지 않던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장군님! 저 멀리 성문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장은 부하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니 정말로 두 명이 앉아서 곡차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백양사의 스님과 입암산의 별장이었습니다.



성문 위에 앉아있던 스님은 멀리 왜장이 온 것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하였으나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왜장에게는 마치 우뢰처럼 들렸답니다.

"왜장은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단 말인가? 내 작은 재주로 이 곳에 강을 만들었는데, 그대가 어찌 이 강을 넘어 올 수 있겠는가? 지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생을 계속하려 한다면 부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쩌렁쩌렁 울리는 스님의 말소리에 왜장은 흠칫 놀라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강을 건너 입암산성으로 쳐들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돌아가자! 저 중의 도력이 만만치 않으니 잘못 했다간 우리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정신을 수습한 왜장은 서둘러 부하들을 이끌고 퇴각하였고 이후로 입암산성과 장성은 왜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 전일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깊은 산속에 늙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며 금실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부는 자식을 얻고자 매일같이 삼신할미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희 집안에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한지 십년, 하늘도 감복하였는지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열 달이 지나 옥 두꺼비 같은 남자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자식에게 일귀(日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부는 10년 만에 낳은 일귀를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일귀가 돌이 지나 걸음마를 하게 되자 너무 귀여워 한 나머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난으로 때리고 오도록 시키기도 했답니다.

"일귀야! 가서 네 어미 한대 때리고 오려무나."

그러면 일귀는 어머니에게 가서 뺨을 한대 때리고, 다시

"일귀야! 이번에는 네 아비 한대 때리고 오려무나."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서 뺨을 한대 때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 일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죠. 이렇게 버릇없게 자란 일귀는 나이가 먹어서도 일은 하지 않고 틈 만나면 부모를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노부부는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아들인 일귀가 무서워 한시라도 쉴 수가 없었고 일귀는 매일 매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이러한 일귀의 망나니 같은 행동은 온 동네에 소문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불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귀는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더욱 부모를 괴롭혔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귀는 나이가 들어 결혼까지 하여 아기도 갖게 되었는데, 하루는 방에 벌떡 누워서 자기 아기를 배위에 올려놓고 어르고 있었습니다.



“보배동아, 보배동아, 누가 너를 낳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느냐?”

일귀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보배처럼 자식을 어르고 있었으나 그의 부모들은 댓돌위에서 겨우 비를 피하며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귀의 어머니는 자식을 어르고 있는 일귀를 보며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일귀야, 넌 네 자식이 그렇게도 예쁘냐? 나도 너를 기를 때는 그보다도 더 예뻐하며 키웠단다."

무심코 이 말을 듣던 일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니, 정말인가요? 나도 이렇게 예뻐하며 키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암, 예뻐하고 말고."

하며, 일귀의 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를 본 일귀는, 한참동안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일귀는 마을길을 지나다가 아들을 꾸짖는 이웃사람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람이 아들을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아 아닙니까?

"이놈아, 넌 커서 무엇이 될 작정으로 이러느냐? 하늘이 버린 패륜아 전일귀 같은 놈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을 듣고 난 일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당장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부터, 일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잠보, 게으름뱅이였던 일귀가 이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 땔감을 해다 팔아서 부모님께 고기반찬을 사다가 대접하였고, 밭에 나가시는 것도 말렸습니다. 늦게야 깨달은 일귀는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1]처럼 늙은 어머니가

---

1) **수욕정이풍부지 자욕양이친부대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코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는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일귀의 슬픔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으로 장사를 지내고 다음날부터 일귀는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삼년상[2]을 지냈는데, 그 곳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빽빽하고 숲이 우거져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곳 호랑이는 사나워서 마을에까지 내려와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도 물어갔답니다. 그러나 일귀에게 있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비하면 호랑이의 무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일귀가 저녁에 밥을 지으려고 물을 기르러 옹달샘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 옹달샘에 도착했을 때 옹달샘 앞 바위에 무엇인가 거대한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난 호랑이였습니다. 일귀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 서는 것 같았지만 조심히 다가가 물을 동이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의 호랑이는 일귀를 공격하기

다. 라는 뜻으로 효도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2) **삼년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삼년동안 움막에 거쳐하는데 매일 부모님께 음식을 올리며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하여 방립을 쓰며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는 일귀를 보호하는 듯 보이더니 옹당샘을 떠나는 일귀의 뒤를 마치 강아지처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나 일귀가 물을 길으러 가면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일귀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귀가 호랑이를 마치 강아지 다루듯 함께하는 것을 보고는 일귀의 지극한 효성에 호랑이도 감동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은 조정까지 들어가게 되어, 조정에서는 원덕리까지 사람을 보내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불효했으나 늦게 깨달은 후부터는 새 사람이 된 효자 전일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일귀에게 큰 상을 내렸으며, 그 후부터 불효자 전일귀는 효자 전일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같이 전일귀 효행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태어난 원덕리에 비석이 세워졌답니다. 이 비석은 계속 전해지다가 동학농민운동 때 전봉준이 원덕리를 지나던 중 뛰어난 효자라 하여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봉준을 뒤쫓아 온 관군들이 전봉준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전일귀의 비석을 부셔버리고 말았답니다. 현재에는 부서진 전일귀의 비석이 원덕저수지 입구에 마을 주민들의 보호 속에 서 있고 북이면 사거리에 전일귀의 비석을 새롭게 세워 후세 사람들의 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갈애바위 전설

원덕에서 동편으로 400m 정도 떨러진 도로변에 조그마한 바위 봉우리가 있는데 흡사 여인의 얼굴과 같으며 이 바위를 갈애바위 또는 미인암, 처용암 이라고 부른답니다. 갈애는 원덕리 목란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몽으로 신선에게 갈대꽃을 받는 꿈을 꾸었다하여 갈대아이 갈애(한자로 노아(蘆娥))라고 불렀습니다. 갈애는 자라면서 미모가 천하일색으로 당대의 이름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갈애가 있었던 주막은 지금의 노령(蘆嶺)에 있었는데 그곳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로 부임하는 부사와 감사들은 언제나 노령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모가 뛰어난 갈애에게 정신이 팔려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조정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었답니다.

당시 임금님이었던 성종대왕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노계명(盧啓命)을 암행어사로 보내어 갈애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갈애는 미리 노령 계곡에서 소복을 입고 어사 노계명을 유인하여 그와 백년가약의 언약을 맺고 팔에 언약의 맹세로 노어사의 이름을 쓰게 했답니다. 며칠 후 어사는 장성부에 출두하여



죄인 갈애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죄를 문책 받게 된 갈애는 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盧兒臂上刻誰名(노아비상각수명)

갈애(노아)의 이팔에 뉘이름 새겨있뇨

點入雪盧字字明(점입설노자자명)

고운살에 먹이 베어 글자도 선명쿠나

寧使川原江水盡(영사천원강수진)

차라리 천원강이 말라버릴지언정

此心終不負初盟(차심종불부초맹)

굳게 맺은 그 맹세 변할 줄이 있으랴

글을 받아 본 어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잡혀 온 갈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니 며칠 전 자신과 백년가약을 맺은 처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사는 그제야 속았음을 깨달았지만 맹세를 어길 수 없어 죄를 묻지 못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은 비록 갈애가 기생이지만 백년가약을 약속했으니 그 맹세를 지킬 것을 명하면서 노계명에게 갈애를 소실로 맞이하도록 하였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처용암이란 바위를 갈애바위라 부르고 갈애의 주막이 있던 고개를 갈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갈애가 죽은 후 마을에 예쁜 여자들이 태어나지만 풍기가 문란하였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말하기를 갈애바위의 정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 바위의 한쪽 눈을 정으로 파버렸다고 하는데, 그 후 태어난 여인들은 얼굴은 곱되 눈이 먼 애꾸가 많이 태어난다는 말이 전해온답니다.



백암산의 역사인물



백양사를 중창한 각진국사

각진국사(覺眞國師)는 법명이 복구(復丘)이며 고려시대 명문 고성(固城) 이씨 집안으로 여덟 살 때인 1277년 조계산 수선사에서 불가에 입문하여 열 살 때 머리를 깎고 계율[1]을 받으셨습니다. 이어 천영(天英)스님과 도영(道英)스님께 배우며 10년 만에 불학에 통달하셨답니다.

21세에 승과[2]에 급제하였으나 오로지 수도에만 정진하여 정토사(지금의 백양사)에서 밤낮으로 참선하기를 십여 년 동안 하시며, 백양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님은 월남사와 송광사에서 40년간 주석[3]하시다가 다시 백양사로 돌아와 대대적인 중창을 하셨는데 많은 문도들과 힘을 합쳐 불전을 다시 세우고 범종과 법고, 승방과 객사를 갖추었으며 특히 제자이자 당시 백양사 주지였던 심백(心白)스님과 지부(智孚)

---

1) **계율**: 계율을 받는 다는 것은 승녀가 지켜야할 규칙과 규범을 받는 것으로 곧 승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승과**: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상하여 과거의 한 종류로 스님을 뽑는 승과를 시행하였답니다.

3) **주석**: 선종에서 스님이 입산하여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스님이 포교를 위하여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님을 바다건너 송(宋)나라에 보내 대장경을 가져오게 했답니다.

스님은 고려 충정왕 2년(1350)에 왕사가 되셨고, 공민왕 원년(1352)에 다시 왕사가 되셨습니다. 81세가 되시던 해에 다시 백양사로 돌아오셨는데 왕명에 따라 불갑사에 주석하시다가 백양사로 돌아온 다음해인 1356년 병을 얻어 임금에게 하직 편지를 올리고 문도들에게 "곧 마음이고 곧 부처인 강서(江西)의 늙은이며,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물외(物外)의 할아비로다. 날다람쥐 소리 속에 나 홀로 가노니, 열반에는 죽고 사는 것이 본래부터 공이로구나"라고 말하신 후 열반게[4]를 읊고는 입적하셨습니다. 입적하신 후 국사로 추존되어



각진국사복구진영

각진국사(覺眞國師)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이시고 법람[5]은 76세이셨습니다.

스님은 사람됨이 묵묵하고 맑고 순박하며 단아하고 평화로우며 곧고 정성스러웠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천여 명을 제자를 길러 내셨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탐방로를 따라 가다보면 각진국사가 꽂아 둔 지팡이가 변해 나무가 되었다는 이팝나무가 있어 스님의 높은 인덕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각진국사의 지팡이가 자라 되었다는 이팝나무

4) **열반게**: 선승이나 고승들이 열반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총체적으로 담아 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5) **법람**: 승녀가 된 이후의 나이를 따로 부르는 말입니다.

입암산성과 의병장 윤진

윤진(尹軫)선생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올곧은 선비로 유명했던 판교[1] 윤강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자는 계방(季邦)이고 호는 율정(栗亭)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일찍이 김인후 선생이 후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문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어 과거를 보지 않았답니다.

선생은 효행도 뛰어났는데, 부친의 상을 당하자 너무나 애통하게 여겨 주변 사람들까지도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변사람들의 천거를 통해 음서(蔭敍)로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과 사옹원(司饔院) 봉사(奉事)로 임명[2]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으로 내려와 김경수(金景壽)선생을 맹주로 한 장성 남문창의[3]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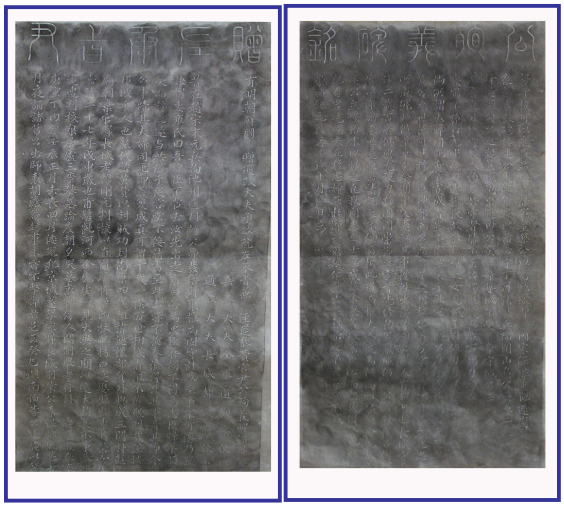
1) **판교**: 조선시대 교서관(책을 만들고 제사를 관장) 및 승문원(외교문서 관리)의 수장을 말하는 것으로 종삼품에 해당합니다.

2) **경기전 참봉 사옹원 봉사**: 경기전은 조선왕조의 발생지인 전주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으로 이곳을 관리하는 종구품의 벼슬을 말합니다. 사옹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음식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봉사는 이 기관의 종팔품 말단 벼슬을 말합니다.

3) **남문창의**: 남문창의는 임진왜란 때 김경수선생을 중심으로 장성의 선비들이 의병

이듬해에는 왜적이 장차 전라도로 침입하여올 것을 예견하고, 전라도관찰사 이정암(李廷馣)에게 입암산성(笠巖山城)의 수축을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허락되어 선생이 입암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아 군량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하고 포루를 새로 마련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선조 30년(1597) 왜적이 남원을 유린하고 장성에 침입하자, 주변의 지방관들은 모두 달아나고 선생의 친척들도 피난할 것을 권하였지만 듣지 않고 백여 명 의병을 지휘하여 입암산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군의 공격으로 힘에 부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총칼로 위협하는 적들 앞에서 끝까지 기개를 잃지 않고 당당히 산성



윤진순의비 탁본(좌 전면, 우 후면)

과 식량을 모아 3차례에 걸쳐 펼친 의병운동을 말합니다.

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셨습니다. 선생의 순국소식이 들리자 부인 권씨(權氏)도 자결하였는데 일본군들도 부인의 절개에 감동하여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선생을 좌승지(左承旨)[4]로 추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순국한지 146년이 흐른 영조 18년(1742) 당시 장성현감 이현윤이 선생의 충절을 기려 산성 내에 순절비를 세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4) 좌승지: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정삼품 고위직을 말합니다.

남창골의 두 선비

– 하곡 정운룡(霞谷 鄭雲龍 : 1542~1593)

조선 중종 37년(1542) 정월 27일, 장성군 북일면 사동리에서 태어난 정운룡 선생은 본관은 하동으로 일찍이 나이 18세에 문장이 뛰어나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시험장에서 불합격된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로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하여 당시 대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기고봉 선생이 매우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선생은 또한 효자로도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들어온 계모 이씨는 성질이 포악하고 모질어 선생을 눈 속의 가시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에게 사람의 힘으로 견뎌내기 힘든 일을 쉬지 않고 시키고 구박했지만, 선생은 아들의 도리를 어김없이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했습니다.

선생은 눈이오나 비가 오나 항상 새벽마다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단정히 한 후에 사당에 나아가 절을 하였고,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계모 이씨

가 늦게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효성에 감동하였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님이 피난가시고 팔도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오히려 의병을 방해하였습니다. 선생은 이에 분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조정에 낱낱이 상소하여 이광을 벌하게 하였습니다. 그 해 겨울, 선생은 고창 현감으로 부임하여 오천 김경수, 장성 현감 이귀, 금강 기효간, 오봉 김제민 등과 장성 남문에 의병청을 만들어 의병과 의곡을 많이 모아 각처에서 왜적과 싸워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나라에서는 좌승지란 벼슬을 주어 모암서원[1]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운룡선생이 쓴 몽계폭포 바위 글

1) **모암서원**: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위치한 서원으로 절효공 서능, 하곡 정운룡을 비롯한 7명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성현을 모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 자하 변경윤(紫霞 : 邊慶胤 1574~1623)

변경윤 선생은 1574년, 이 곳 장성에서 망암 변이중과 오씨 사이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변이중 선생은 조선 선조 때, 화차를 발명하여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 싸움에 이를 사용, 크게 승리를 거두도록 한 유명한 분이랍니다.

선생의 호는 자하이며 본관은 황주로 천성이 아버지를 닮아 인품이 정중하며,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한 번 읽고 이해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사곤 하였는데, 나이 스무 살 무렵에는 술 마시고 시를 짓는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풍류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눈치 챈 어버지가 선생을 불러다가 매우 꾸짖었는데, 그 후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깨달은 바 있어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며, 성혼, 김장생 등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글을 배우면서 학문에 정진하였습니다.

광해군(1575~1641) 시절에 구언령(求言令)을 내리자, 선생은 교

서관의 저작2)이란 말직으로서 당시 국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고하면서, 특히 집권대신들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려 미움을 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는 지금의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자하동에 은거하여 평생을 성리학설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조정에서 관직에 다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하였고 합니다.



2) **교서관 저작**: 교서관은 유교 경전을 인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저작은 이 관청의 정팔품 벼슬을 말합니다.

백암산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필암서원

사적 제242호
황룡면 필암리 377

필암서원은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닦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지금의 사립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조 23년(1590)에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타 인조 24년(1624)에 다시 지었습니다. 현종 3년(1662)에 임금께서 '필암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직접 내려 보내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필암서원 전경(문화재청 사진)

황룡전적지

사적 제406호
황룡면 장산리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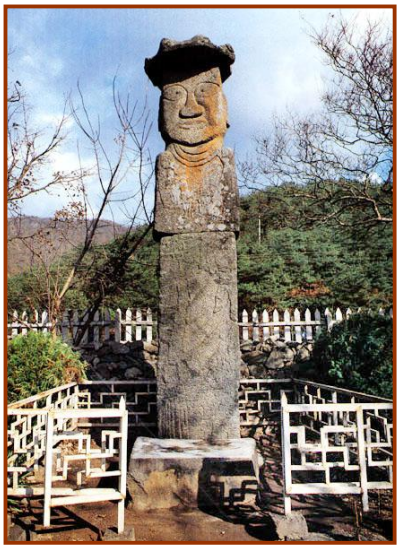
황룡전적지 전경(문화재청 사진)

황룡전적지는 조선시대 말 벼슬아치의 폭정과 외세의 침략을 맞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의 전적지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황룡전투에서 동학군은 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전주성을 함락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곳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전주 점령 계획을 세우고 가장 좋은 장소로 황룡을 선택했으며, 관군의 총알을 막을 수 있도록 대나무를 원통모양으로 엮어 만든 장태라는 신무기를 이용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원덕리석불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3호
북이면 원덕리 36-1

돌기둥 모양의 이 석불은 가슴 아래의 몸체를 먼저 만든 뒤, 그 위로 가슴부터 머리까지는 다른 돌을 얹어 조각하였으며 얼굴, 손, 옷주름 등을 간략히 표현하였습니다. 머리에는 8각의 넓은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큼직한 사각형의 얼굴은 커다란 눈, 뭉툭한 코, 두터운 입술 등의 표현으로 자비스러운 부처의 모습보다는 석장승과 같은 토속적인 수호신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엄한 인상보다는 토속미 넘치는 친근한 인상을 주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연대는 고려 말이나 조선 초로 추정됩니다.



장성원덕리석불(문화재청 사진)

홍길동생가

황룡면 아곡리

홍길동 생가는 지금까지 소설 속의 가상의 인물로 생각되었던 홍길동이 조선 연산군 시대의 실존 인물이라는 가정을 『조선왕조실록』, 『해동이적』, 『남양홍씨족보』등을 통해 고증하여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아치실)에 1999년 복원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져오던 길동샘 및 홍길동 생가터를 복원하여 조선시대 의적이자 영웅이었던 홍길동을 역사속에서 부활시켰으며 주변에 전시관이 있어 홍길동의 일대기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소쇄원(瀟灑園)

명승 제40호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소쇄원 전경(문화재청 사진)

소쇄원은 조선 중종 때 사람인 양산보(1503~1557)의 별서정원(別墅庭苑)입니다. 별서란 일반 살림집에서 떨어져 산수가 좋은 곳에 마련된 주거공간을 말하며 이곳에 정자와 더불어 조성된 정원을 별서정원이라 합니다. 소쇄원의 주인인 양산보는 조광조 밑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유배된 조광조를 따라 능주로 갔다가 결국 스승이 사약을 받고 죽자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30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40대에 완성한 것으로, 소년 시절에 마을 뒤의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따라서 지금 소쇄원이 있는 곳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젠가는 이곳에 집을 지어 살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소쇄(瀟灑)'라는 말은 본래 공덕장(孔德璋)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나온 말로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합니다.

식영정(息影亭)

전라남도 기념물 제1-1호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자곡리


식영정 전경(문화재청 사진)

식영정은 명종 15년(1560), 김성원(1525~1597)이 그의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1496~1568)에게 드리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식영정이란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주인을 찾아, 이곳에는 수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송강(松江)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어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철의 유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죽녹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향교리

죽녹원은 담양군에서 조성한 담양읍 향교리의 죽림욕장입니다. 관방제림과 영산강의 시원인 담양천을 끼는 향교를 지나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대숲이 죽녹원입니다.

죽녹원 입구에서 돌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오르며 굳어 있던 몸을 풀고 나면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대바람이 일상에 지쳐 있는 심신에 청량감을 불어 넣어준답니다. 또한 죽녹원 안에는 대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로차(竹露茶)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죽로차 한 잔으로 목을 적시고 죽림욕을 즐기며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대나무를 올려다 보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나무와 댓잎이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논문

강현구. 「백양사의 민속자료」. 『불교문화연구』 6. 1996.

이준곤. 「백양사의 설화자료」. 『불교문화연구』 6. 1996.

정의행. 「백양사의 승전」. 『불교문화연구』 6. 1996.

서적

나경수. 『장성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만암대종사문집간행회. 『만암문집』. 백양사 고불총림. 1987.

전라남도장성군.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장성군. 1989.

전라남도장성군.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장성군. 1990.

조선대학교박물관. 『장성군의 문화유적』.장성군. 1999.

홈페이지

http://www.cha.go.kr(문화재청)

http://jangseong.kccf.or.kr(장성군 문화원)

http://tour.jangseong.go.kr(장성군 문화관광)

http://yoksa.aks.ac.kr(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발 행 일▌2009. 5. 20.
총 괄▌정석원_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책 임▌박성배_자원보전팀장
집필및편집▌이기구_역사문화자원 담당자
발 행 처▌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52-1
Tel: 061-392-7288, 7088 Fax: 061-392-7556
홈페이지: http://naejang.knps.or.kr
인 쇄 처▌동성기획
Tel: 062-224-8928, 8929 Fax: 227-1970